

공주시의회 의정 활동 소식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의회사무국 직원 임용장 수여



공주시의회(의장 이종운)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시행 첫날인 1월 13일 공주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한 임용장을 수여했다. 이날 수여식에는 이종운 의장과 박기영 부의장 그리고 서승열 운영위원장, 임달희 행정복지위원장, 김경수 산업건설위원장, 이창선 의원이 참석했으며, 집행부에서는 이순중 공주시 부시장이 축하의 자리를 함께 했다. 지난 2020년 12월, 32년만에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이 금년 1월 13일 전면 시행되면서 지방의회 인사권이 분리·독립되고, 정책지원 전문인력인 정책지원관

제도가 도입됐다. 향후 지방의회 역량 강화와 자치권 확대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종운 의장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첫날의 상징적 의미를 강조하면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조하고 보좌하는 의회사무기구가 이제 본연의 역할에 보다 충실을 기할 수 있게 됐다고 반기는 한편, 지방의회의 제도 전환기를 맞아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소명의식을 갖고 의회발전과 개인의 성장에 매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임인년 설맞이 어려운 이웃 방문 사회복지시설 2개소 위문품 전달, 격려



공주시의회는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앞두고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인 새움터(의당면)와 행복요양원(정안면)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고 시설대표자와 환담의 시간을 가졌다.

시의회는 코로나19 방역지침을 고려하여 시설입소자 위문이나 애로사항 청취 등은 생략하고, 쌀과 세제, 화장지 등 100만원 상당의 생필품을 전달했다. 이종운 의장은 “코로나

19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입소자들을 위해 헌신해 주시는 복지시설 종사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장기화된 코로나19로 모두가 지치고 힘들지만, 이웃과 함께 따뜻한 정을 나누는 설 명절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공주시의회는 매년 설과 추석 명절마다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이웃사랑과 나눔문화 확산에 앞장 서고 있다. 🙌

인사위원회 개최, 5급 1명 승진의결 '지방의회 인사권독립' 후 최초 인사위원회 열려



공주시의회는 1월 27일 '시의회 인사위원회(위원장 김정태 국장)'를 열고 현재 공석인 전문위원 총원을(5급, 1명) 위해 승진임용 대상자 1명을 승진의결 했다. △ 행정5급 승진 의결 (조귀동)

위촉장을 수여한 후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제도도입 초기인 만큼 앞으로 의회사무기구 직원 인사가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김정태 의회사무국장은 "시의회 인사권 독립이 본래 의 제도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앞으로 의회사무국 자체 인 사업무 추진역량을 배양하고 인사행정 시스템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보육정책과 당면 현안에 대한 간담회

1월 20일 공주시의회 이종운 의장은 신임 인사차 시의회를 방문한 충남어린이집연합회 이순식 회장과 공주시지회 정순옥 지회장과 신년 덕담을 나눈 후 시 보육정책과 당면 현안에 대해 간담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 의장은 보육 업무 종사자들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 우리 미래세대의 주역이 될 어린이 보육정책에 대해 앞으로 의회에서도 더욱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시민예술공간 손글씨전 열려, '캘리그래피 작품 15점 전시'

공주시의회는 2022년 2월 4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 의회 시민예술공간에서 '나를 즐기는 여행자를 위한 공주산성 손글씨전'이라는 제목으로 '작품 15점'을 전시했다. 이번에 작품을 출품한 '수미캘리그래피' (회장 박찬숙)는 회원 15명으로 구성된 동아리로 2015년 구성된 이래 매주 1회 모임을 가지면서 회원들의 실력향상을 꾀해오고 있으며, 지금까지 매년 정기 회원전(7회)과 의료원 힐링 갤러리 전시 및 재능기부를 이어오고 있다. 또한 공주시 우수학습동아리에 참여하면서 시민들에게도 친근하게 다가가고 있다. 캘리그래피는 손으로 쓰는 글쓰기 예술로 문자메시지나 이메일이 일상화 된 요즘 시민예술공간을 찾는 방문객들이 캘리그래피(손글씨)의 매력에 새로운 신선함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종운 의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시민들이 다양한 글쓰기를 표현한 캘리그래피 작품을 감상하면서 잠시나마 힐링의 시간을 가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

살
펴
보
다

공
주

기고문

유구관불산 채석단지 개발 즉각 중단하라!

공주시의회 의원 박병수



대한민국 헌법 제35조 1항.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 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위 조항 위반시 헌법소원 대상)

조선시대 정감록(鄭鑑錄)에 의하면 공주 유구읍은 당대 최고 예언가인 격암 남사고 선생의 남사고 비결(南師古秘訣)에 십승지지(十勝之地)라 하여 거주 환경이 좋으면서, 난세에 병화를 피하기 위해 가장 좋은 전국 명당 10군데 중 유구, 마곡 즉, 유마지간(維麻之間)을 여섯 번 째로 예언한 곳으로 몸을 안전하게 보전하며 복을 내리는 길지(吉地)라고 평(評)한 지역이다.

현대의 예언가들도 서울 수도가 이전해 와도 손색이 없을만큼 명당 터 라고 입을 모으는 곳이 바로 이곳 유구이다.

이러한 연유(緣由)로 유구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명산이 시내에 인접(隣接)해(시내 중심가에서 2Km이내) 있는 관불산이다. 상징성과 정체성이 매우 중차대(重大)하여 한창 자라나는 학생들이 늘 부르는 학교 교가로 유구 소재 초,중,고가 채택해 학생들의 자부심을 심어주고 있다.

또한 관불산은 유구 전역에서 바라 볼 수 있는 지척(咫尺)에 있으며 정상에서 유구 전역이 내려다 보일 뿐만 아니라 마치 유구를 지켜주는 위풍

당당한 수문장 같은 등직한 산세로 자리를 잡고 있다. 그런데 요즘 이 산을 채석단지로 개발하겠다고 전국 채석단지 개발 1위업체인 삼표산업에서 허가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다.

무려 26년간 개발한다하니 유구는 핵폭탄 맞은 도시처럼 잿더미로 변할 것이며 어느 누구도 살 수 없는 폐허로 남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정주여건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떠나는 주민이 상당하리라고 사료(思料)가 된다.

헌법에 보장되어 있듯이 유구 뿐만 아니라 공주시민 전체의 행복추구권을 1개 기업에 배 불리려 희생 당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유구 관불산 채석단지 개발은 상상할 수 없는 행위로 유구읍민의 삶을 말살하는 것은 물론이고 공주시를 파괴하는 행위이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무조건 철회되든지 무산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몇 꼭지 안 남은 보존가치 있는 지역을 시민 여러분과 함께 힘을 모아 꼭 지켜 내자. 🙏

기고문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문제점

공주시의회 의원 이맹석



산업혁명 이후 인간의 풍족한 생활을 위한 환경 파괴 및 무절제한 자원 개발은 다양한 환경오염을 발생시키고 있다. 그 중에서도 환경오염의 대표적인 사례는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이다.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이 환경 오염의 주된 원인이 되는 것은 첫째, 플라스틱 제품은 폐기 후 수 백년이 흘러야 만이 자연 분해가 된다는 것이다. 이 기간 동안 환경 오염을 지속시키고 있는 것이다. 둘째는 미세플라스틱이 모든 생물체의 몸속에서 분해가 안 되고 축적되어 인간의 생존을 위태롭게 한다는 것이다. 정부에서도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카페 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 금지 등 대책을 내놓았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못했다.

이에 대안으로 다회용기인 ‘텀블러’ 사용의 일상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이 방법 또한 숙고해야 된다는 것이다. ‘텀블러’의 경우 장기간 재사용해야 일회용 컵보다 환경에 도움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많은 프렌차이즈 카페 등은 자체적으로 특화된 ‘텀블러’를 대량으로 제작 사용

하고 있어 통제가 안 되고 있으며, ‘텀블러’의 부품을 별도로 팔고 있지 않아 고무 패킹 등 일부 부품만의 교체가 필요할 시에도 텀블러 자체를 새로 구입해야 하는 등 불필요한 ‘텀블러’를 대량 생산해 본래 환경 보호의 취지를 벗어나고 있다.

이에 본인은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나 지자체의 대책들을 비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환경 보호 취지의 다각적인 노력과 대안들이 장난감 ‘요요’ 처럼 본래의 목적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 또 다른 환경 오염의 원인으로 되돌아오고 있지 않은지 철저한 검증과 사후점검에 철저를 기하고자 제한하는 것이다. 우리 모두는 지구를 보전하는 본래의 취지를 잊지 않으며 주체적인 자세로 환경 보호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



살
펴
보
다
10
주